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우승' 향해 전진



광주동성고 최성민(50번)이 2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의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 경기에서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얻은 뒤 상대 투수 때 2루 진루를 시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광주일고가 '지역 라이벌' 광주동성고를 꺾고 황금사자기 2연패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디펜딩 챔피언' 광주일고가 2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동성고와 8강 경기에서 9-1,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광주일고 선발로 나선 2학년 좌완 이의리가 동성고의 막강 타선을 5이닝 1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봉쇄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타석에서는 '1차지명 후보' 박시원의 활약이 눈부셨다. 박시원은 3루타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볼넷과 고의사구로 4타석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1회에 두 팀의 희비가 엇갈렸다. 1회초 동성고의 톱타자 허진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김현창의 보내기 번트에 이은 폭투로 3루로 향했다. 고승원의 볼넷과 도루로 1사 2·3루. 하지만 4번타자 최지강이 헛스윙 삼진으로 몰려나 뒤 김재우의 2루 땅볼이 나오면서 동성고 공격이 소폭 없이 끝났다. 반면 톱타자 박시원의 중전안타로 포문을 연 광주일고는 1사 1·2루에서 타진 4번타자 한지운의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조형우의 중전안타 때 2루까지 간 한지운은 윤성용의 유격수 땅볼로 득점도 기록했다.

선발 이의리 5이닝 무실점 호투
박시원 멀티히트·4타석 출루 맹활약
광주 동성고 9-1 꺾고 준결승 진출
내일 유신고-부산정보고 승자와 격돌

동성고에게는 2회도 아쉬웠다. 선두타자 최성민이 볼넷과 상대 폭투로 2루까지 내달렸다. 김시양의 좌전안타로 무사 1·3루가 됐지만 이현우의 타구가 1루수 정면으로 향했다. 스타트를 끊은 1루 주자가 귀루에 실패하면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됐다. 그리고 이준범의 우익수 플라이로 2회도 허무하게 끝났다. 이후 이의리에게 막힌 동성고는 5회까지 단 한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못했다. 마운드 싸움에서 앞선 광주일고는 4회 다시 득점에 성공했다. 2사 1루에서 박시원이 우중간 3루타로 1타점을 올렸고, 보코로 홈까지 들어왔다. 5회 광주일고가 승기를 굳히는 공세를 펼쳤다. 정도웅의 내야안타에 이어 한지운의 연속안타가 나

오면서 6-0.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베이스가 가득 찼다. 그리고 정창대의 좌중간 안타로 8-0이 됐다. 볼넷이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이번에는 류민승의 희생플라이가 나왔다. 동성고는 박시원을 고의사구로 내보내며 '더블 플레이 작전'에 나섰다. 그리고 전광진의 홈병살로 추가 실점 없이 6회 공격에 돌입했지만, 콜드게임을 앞두고 동성고 야수들의 마음만 급했다. 허진과 김현창의 연속 볼넷으로 만들어진 6회 무사 1·2루에서 고승원이 헛스윙 삼진으로 몰려났다. 또 공이 뒤로 빠진 사이 스타트를 끊었던 김현창까지 두 명이 동시에 아웃됐다. 4번 최지강도 좌익수 플라이로 몰려나면서 동성고가 '0'의 침묵을 깨지 못했다. 동성고가 7회초 김재우와 최성민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김시양의 타구가 3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5-4-3의 병살이 기록됐다. 이때 3루에 있던 김재우가 홈을 밟아 동성고의 유일한 득점이 기록됐다. 이현우의 3루수 땅볼로 경기는 광주일고의 콜드게임승으로 마무리됐다. 지역 대결에서 승자가 된 광주일고는 28일 유신고-부산정보고 승자와 오후 3시에 준결승전을 치른다. /김여용 기자 wool@kwangju.co.kr



박진섭 '이유 있는 겨울 양복'

광주 FC 16경기 무패 질주에 개막전 옷차림 고수
"팀 계속 이길수 있다면 괜찮다" 뜨거운 여름 예고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광주FC의 패배는 기록되지 않았다.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광주FC의 기세는 여전하다. 그리고 광주를 지휘하는 박진섭 감독의 겨울 양복도 그대로다. 광주는 지난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K리그2 16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개막 이후 16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2위 부산아이파크와를 승점 4점 차로 따돌리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여름 더위가 찾아왔던 이날 선수들은 땀 뻘뻘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비며 승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끈 박진섭 감독도 선수들과 같이 많은 땀을 흘렸다. 시즌 개막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박 감독의 패션 패턴이다. 지난 3월 3일 광주는 서울이랜드와 원정경기를 통해 2019시즌을 시작했다. 이날 파란 셔츠에 다크 베스트를 꺼입은 박 감독은 겨울 양복을 입고 시즌 첫 경기를 지휘했다. 결과는 펠리페와 여름의 골을 앞세운 광주FC의 2-0 승리였다. 박 감독은 승리의 기운이 담긴 양복을 똑같이 입고 3월 10일 아산무궁화와의 홈 개막전을 치렀다. 홈개막전 역시 헤트트릭을 기록한 펠리페의 활약 속에 광주FC의 4-0 승리로 마무리됐다. 기분 좋게 연습으로 시즌을 연 박 감독은 이후 '행운의 양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FC의 무패행진이 16경기까지 이어지면서 박 감독의 겨울 패션도 계속되고 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경기 전 날씨를 확인하는 게 박 감독의 새로운 일과가 됐다. 하지만 '행운의 양복'을 벗을 생각은 없다. "팀이 이길 수 있다면 괜찮다"며 겨울 양복을 고집하는 박 감독은 "그래도 요즘은 야간 경기를 해서 괜찮다. 여름에 강하다"는 말로 한여름에도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박 감독의 '여름 자신감'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 바로 선수들이다. 지난 여름 광주는 많은 선수들 탓에 기복 많은 시즌을 보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은 곧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겨울내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한 광주는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 성공적으로 로테이션 운영을 하면서 탄탄한 전력의 팀으로 거듭났다. 박 감독의 '뜨거운 겨울'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된다. /김여용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라리가 레반테로 임대되나

빅리그 새 시즌 앞두고 축구별들 이적 관심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축덕'들을 설레게 할 슈퍼스타들의 대형 이적 뉴스가 쏟아질까? 새 시즌을 앞두고 빅클럽들의 선수 영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축구 별들의 연쇄이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문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열었다. 레알마드리드는 최근 2억2700만 파운드(3348억원)를 쏟아부었다. 인간계 최강 에덴아자르(28·벨기에)를 시작으로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7골을 몰아넣으며 프랑크푸르트의 돌풍을 이끈 공격수 루카 요비치(22·세르비아), 올림피크 리옹의 왼쪽 풀백 페들랑 멘디(24·프랑스), 제2의 네이마르 호드리구

(18·브라질)를 산토스에서 영입했다. 또 FC도쿄에서 '일본의 신성' 구보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구보는 다음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리저브 팀인 라우이 이그는 카스티야 소속으로 댄다. 바르셀로나도 앙투안 그리즈만(28·프랑스), 네이마르(27·브라질)을 노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펼친 앙투안 그리즈만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채널을 통해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며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그리즈만의 바이아웃은 1억 2000만 유로(약 1598억원)이다. 지난 2017년 챔피

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파리생제르맹으로 떠난 네이마르도 이적을 위해 주급 삭감까지 각오한다는 현지 보도와 함께 진정된 복귀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경우 필리페 쿠티뉴(27·브라질), 사무엘 움티티(26·프랑스) 등의 선수들이 방출될 것으로 보여 유럽 축구스타들의 연쇄이동이 예상된다.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발렌시아)을 향한 유럽 클럽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회 기간에 아약스와 PSV 에인트호번(이상 네덜란드)이 이강인의 영입을 원한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레반테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상황이다. 레반테는 발렌시아 데비 관계를 이루고



이강인

있는 지역 연고지의 라이벌 팀으로, 두 팀의 경기는 '발렌시아 데비'로 불린다. 파코 로페즈 감독은 지난 2012년 1년간 발렌시아 B팀을 지도한 바 있는 발렌시아 출신으로 이강인의 레반테 임대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기적의 사나이들

미국 81세·75세 남성 하루~이틀사이 홀인원 2회

미국 81세 남성이 하루에 두 번 홀인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75세 남성은 이를 연속 홀인원을 하는 사례가 나왔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26일(한국시간) "최근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스 빌리지의 코테즈 골프코스에서 척 밀러라는 81세 남성이 하루에 홀인원을 두 번 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135야드 12번 홀과 138야드 17번 홀에서 연달아 홀인원을 달성했다. 그는 지역 매체인 핫스프링스 빌리지 보이스와 인터뷰에서 "첫 홀인원은 50년 전에 했고 이제 나는 홀인원을 세 번 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하루에 두 차례 홀인원을 할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 계산이 나와 있지만 대체로 1억5900만분의 1 정도"라고 전했다. 또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75세 남성의 이를 연속 홀인원 소식을 알렸다. 미국 네바다주 서머릿 컨트리클럽에서 짐 베이커라는 75세 남성이 13일과 14일에 연달아 홀인원을 했다. 베이커는 13일 15번 홀, 14일에는 3번 홀에서 홀인원 손맛을 봤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아마추어가 이를 연속 홀인원을 할 가능성은 570만분의 1이라고 한다. /연합뉴스